

사망자 군인연금 수급 여부 유가족에게 전화 문자 전송 국군재정관리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국군재정관리단은 지난 2일부터 사망자의 군인연금 수급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군인연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정보를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재정관리단은 “상속인의 신속한 군인연금 승계를 돕기 위해 이 서비스에 군인연금 정보 제공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한 유가족은 사망자의 군인연금 수급 여부를 2~3일 안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관리단은 이를 통해 유족연금 청구시효 소멸로 인한 수급권 상실 문제 및 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준장) 재정관리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방 가족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방 가족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